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70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18.

발 의 자 : 장경태 · 김진애 · 노웅래
양정숙 · 오영환 · 유정주
윤건영 · 윤준병 · 이용빈
이원욱 · 김남국 · 전용기
정춘숙 · 조응천 · 홍성국
홍정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19년 상반기 여객자동차 운수가맹사업 최초 면허가 발급된 이후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의 수입이 개선되는 등 가맹택시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음.

그러나,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어,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가맹점에만 가입할 수 있어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을 선점하게 되어 이는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, 가맹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할 통해 택시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(안 제49조의11).

법률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23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11제2항 중 “운송사업자는”을 “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1723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의11(여객자동차플랫폼운 송가맹점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운송사업자는</u> 둘 이상의 운송 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 다.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	<p>법률 제1723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의11(여객자동차플랫폼운 송가맹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</u> <u>로</u> ----- 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